사투리 쓰면 천박…서울말 써야 품위?

한국문화 융성 위해선 지역별 방언사전·시대별 국어사전 제작 필요

손희하 전남대교수 '국어정책의 방향' 주제발표

"우리나라 말은 우리나라 국민이 사용하는 말을 일컫는다. 수도권 지역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그 말을 쓰지 않는 지역을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

표준어를 기준으로 지방의 언어를 배제하거나 천시하는 현행 국어정책에 대한 방향 수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세기 다문화 다양성의 시대를 맞아 지역어를 인정하고, 지역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국어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손희하 전남대 국문과 교수는 11일 국립국어원 주최로 이화여대 학생문화관에서 열릴 '문화융성을 위한 국어정책의 방향' 학술대회를 앞두고 9일 배포한 '소통과 문화융성을 위한 표준어와 방언' 주제발표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손 교수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국어는 표준어 정책에 따라 비표준어 사용자를 소외시키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 더욱이 광주·전남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농민, 노인의 인구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랜 기간 지속돼 온 서울 중심의 표준어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988년 교과부가 정한 '표준어 규정'은 '교양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규정에 대해 손 교수는 표준어를 못하면 교양없는 사람이 된다는 잠재적 뜻이 포함돼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는 소통과 통합,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에 자칫 표준어가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이들에게 억눌림과 스트레스를 줄 뿐 아니라, '말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표준어는 국민 누구나가 공통으로 쓸 수 있게 마련한 공용어(公用語)이기 때문에, 공적 활동을 하는 이들이 표준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관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짚는다.

손 교수는 "특히 행정적인 측면에서 표준어 사용을 강조한다면, 다수의 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한 상황에서 '서울말'을 표준어라고 고집할 근거가 없다"며 "지방분권시대에 지역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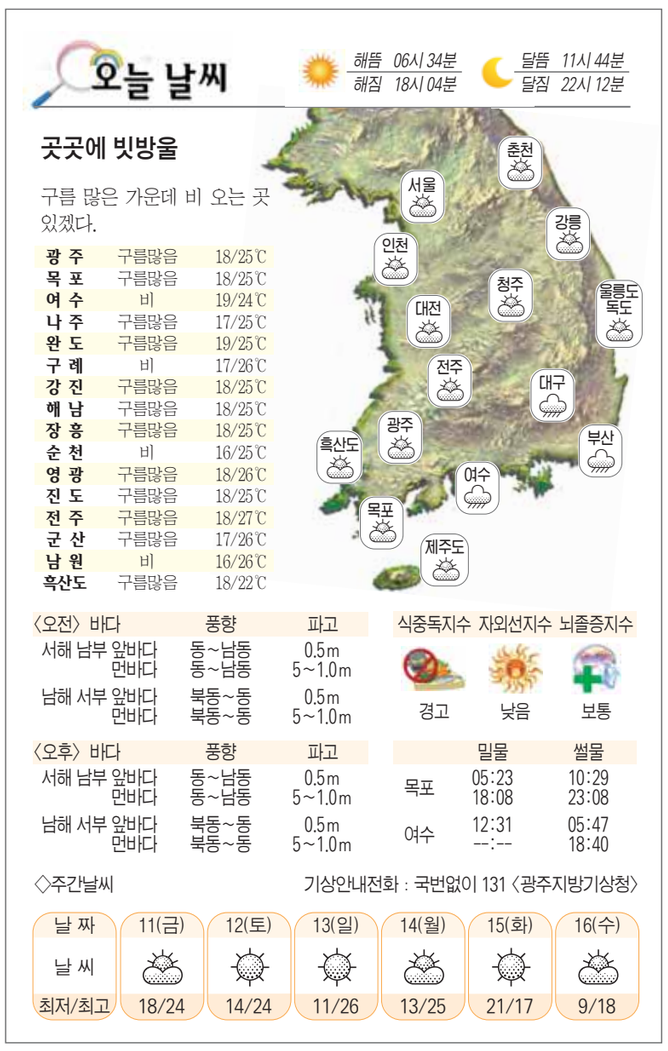
이어 손 교수는 "한국어는 대한민국 모든 지역 언어의 총합으로,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닌 세계에서 쓰는 'KOREAN language'의 총체라는 인식 위에서 국어 정책의 방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어(新語)엔 관대하면서 방언을 사어화하고 천대시하는 정책과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방언과 전승어는 특정 지역에서 누대를 거쳐 이어온 문화유산이자 생활유산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광주 출신 시인과 작가들의 문학작품에는 남도문화의 보고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감칠맛 나는 토속어가 다수 수록돼 있다. 조정래 '태백산맥', 송기숙 '녹두장군', 문순태 '타오르는 강'과 같은 소설은 남도방언의 보고라고 할 만큼 사투리가 맛깔스럽게 표현돼 있다.

최근에 '정글만리'를 펴낸 소설가 조정래씨는 "남도의 사투리는 남도의 정신이자, 그 안에 무한한 에너지가 내재돼 있다. '태백산맥'을 연극으로 만들 때면 깡패로 나왔던 염상구 역이 가장 인기가 많을 정도로 전라도 사투리는 특유의 개미가 있다"고 말한다.

손 교수는 "국가와 지역은 몸과 세포와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세포 하나하나가 제대로 살아 활성화돼야 몸이 살듯이, 지방의 언어와 문화 또한 그런 관점에서 활성화돼야 한국어와 한국문화도 융성해질 수 있다"며 "문화 융성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방언사전, 시대별 국어사전 제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연명치료 의존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병상 1378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의미 없는 연명치료에 의존하는 말기 암환자들이 고통 없이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2020년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병상을 1378개로 확대하고 이용률을 20% 선까지 끌어올리겠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완화의료전문기관 이외에도 상급종합·종합병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팀(PCT),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를 도입해 서비스를 연계한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팀(PCT)은 일반 의료기관에 있는 말기 암환자에게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소개하고 치료는 물론 정신 상담까지 도맡는 역할을 한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기본 팀을 이루며, 환자 요구에 따라 성직자, 심리치료사를 포함할 수도 있다. /연합뉴스

제567돌 한글날을 맞아 '제1회 전남도 우리말 겨루기 대회'가 9일 전남도청 만남의 광장에서 박준영 지사, 장만채 교육감과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가자들은 이날 행사를 통해 한국어의 우수성을 깨닫고 우리말 사랑 의지를 다졌다. 〈전남도 제공〉

광주·전남 태풍 피해 '미미'

일부지역 정전·교통사고

제24호 태풍 '다나스'가 광주·전남 지역에는 큰 피해없이 9일 오전 9시 독도 동쪽 약 240km 해상에서 소멸됐다.

이번 태풍으로 전남 일부 지역에서 정전과 빗길 교통사고 등 피해가 발생했다. 8일 오후 6시50분께 여수시 남면에서는 강풍으로 가로수가 쓰러지며 전봇대와 충돌해 363가구가 정전됐다. 남면 주민들은 복구가 완료된 9일 새벽 5시10분까지 약 10시간 동안 불편을 겪었다.

빗길 교통사고도 잇따랐다. 8일 오전 11시50분께 담양군 담양읍 삼만리 인근 도로에서 오토바이에 치인 최모(41)씨가 숨졌고 오후 5시10분께 화순군 능주면 석고리 인근 도로에서는 조모(여·32)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부상을 당했다.

오후 5시 30분께 광양시 남해고속도로 광양터널 인근에서는 김모(28)씨가 운전하던 현금수송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이 사고로 차량 뒷자석에 타고 있던 박모(42·여)씨가 숨지고, 김씨 등 2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박정렬기자 halo@

'추억&힐링' 충장축제 팡파르

닷새일정 돌입…세시봉 콘서트 등 행사 다채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추억의 7080 충장축제'의 막이 올랐다.

광주시 동구는 9일 동구 금남로에서 '추억&힐링'을 주제로 '추억의 7080 충장축제' 개막식을 열고 낭만을 만끽하는 축제를 시작했다. 이날 개막식엔 노희용 동구청장 등 내외빈과 주민 2000여명이 참석했다.

개막식에 앞서 금남로에서 열린 거리 퍼레이드에선 동(洞) 주민팀·외국인팀·전국자치단체 문화교류팀 등 100개팀·1만 명이 '콩당콩당 추억을 열어라'는 주제로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문방구·이발관·선술집·DJ다방·만화방 등 1970·1980년대 풍경으로 꾸며진 '추억의 테마거리'에선 추억의 편지쓰기·통기타와 함께 하는 세시봉 콘서트·변사극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광주극장 인근에 조성(300m)된 '추억의 테마거리'는 광주지역 설치작가들이 3개월 전부터 공들여 준비해왔다.

'추억의 7080 충장축제'는 오는 13일까지 동구 금남로·충장로·아시아문화전당 일대에서 진행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학교 반경 200m내 '멀티방' 못 들어선다

이르면 연말부터…입법예고

이르면 연말부터 청소년 탈선의 온상으로 지적된 '멀티방'은 학교 반경 200m 내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들어서기 어렵게 된다.

교육부는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에 멀티방을 추가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멀티방은 노래방과 PC방, 비디오방을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든 복합시설로, 청소년의 탈선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합뉴스